인싸의 시장 관찰 기록 — 2026-11-05 (목요일)

[오늘의 한 줄]

미국 중간선거 '블루 웨이브'의 후폭풍이 한국 증시를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의 AI·데이터센터 규제 강화와 텍사스 주지사의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 공약 당선으로 반도체·장비·전력기기가 동반 추락하며 코스피는 -5.28%(5,383.80, 7개월 최저), 코스닥은 -5.11%(678.41)로 급락했고 양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유가는 트럼프의 '즉각 공격 없음' 발언에 브렌트 93달러대로 두 달 최저치입니다.

[확인된 데이터]

■ 한국 시장 (11/5 정규장 마감, 오후 3시 30분)

- 코스피 5,383.80 (-300.00, -5.28%). 4월 3일(5,337.30) 이후 7개월 만에 최저. 코스닥 678.41 (-36.54, -5.11%)로 3개월 만에 700선 붕괴. 양 시장 모두 매도 사이드카 발동(10/15 이후 처음).
- 삼성전자 201,500원 (-7.57%, 장중 199,800원으로 20만원 밑돌기도). SK하이닉스 126만4천원 (-9.46%). 삼성전기 94만4천원 (-15.34%).
- 전력기기 3종: 효성중공업 179만1천원 (-12.59%), LS일렉트릭 129,800원 (-13.87%), HD현대일렉트릭 401,500원 (-8.44%). 장비주도 주성엔지니어링 -12.21%, 심텍 -17.97%, 원익IPS -15.74%로 급락.
- 배경: 민주당 압승으로 AI·데이터센터 규제 강화와 건설 지연 우려가 메모리 신규 발주 둔화 전망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텍사스 주지사에 데이터센터 즉시 모라토리엄을 공약한 민주당 히노호사가 당선됐는데, 텍사스는 미국 신규 데이터센터 계획 용량의 27~30%를 차지합니다. 골드만삭스는 단기 모라토리엄이 미국 계획 용량의 최대 45%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고, 45개 지역 주민투표에서도 데이터센터 금지·제한이 75%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 상대 강도: 일본 닛케이 -1.79%, 대만 -3.2%로 한국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5086751008, 인베즈 https://invezz.com/news/2026/11/04/micron-sk-hynix-sandisk-stocks-fall-why-dems-texas-win-is-spooking-investors/

■ 오늘 누가 사고팔았나 (한국거래소 오후 3시 35분 집계)

- 코스피: 외국인 -3조4,242억원(3거래일 연속 조 단위 매도, 규모 확대), 기관 +8,457억원(연기금등 +1,607억, 5거래일 연속 매수), 개인 +2조2,722억원, 기타법인 +2,750억원.
- 코스닥: 외국인 -760억원, 기관 -1,026억원, 개인 +1,720억원.
- 누적(9/23부터 28거래일, 네이버 종가 기준 자체 집계, 근사치): 외국인 순매도 누적 코스피 약 36.3조원, 코스닥 약 1.27조원. [계산]

- ※ 수급 수치는 집계 시점·범위에 따라 기사마다 다릅니다(위 표는 15:35 기준).
출처: 연합뉴스 투자자별 매매동향 표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5134600008

■ 미국 시장 (11/4 수요일 마감)

- 지수는 선거 결과 확정에 반등: 나스닥 25,736.51 (+1.44%), S&P500 7,688.62 (+1.58%). 그러나 반도체지수(SOX)는 10,268.65 (-3.13%)로 따로 내렸습니다.
- 메모리·AI 인프라만 급락: 마이크론 795.23 (-7.00%), 샌디스크 1,037.40 (-7.91%), 엔비디아 200.13 (-3.17%), 코어위브 48.42 (-9.90%), GE버노바 832.83 (-9.30%), 오라클 123.73 (-1.95%), 팔란티어 171.70 (-2.11%), 아이온큐 29.54 (-1.50%).
- 반대편: MS 555.80 (+6.68%), 아마존 266.03 (+6.12%), 알파벳 288.93 (+3.18%), 메타 630.00 (+1.44%). 사모대출 3사도 아폴로 +8.11%, KKR +5.57%, 블랙스톤 +6.24%로 크게 반등.
- 마이크로소프트가 Nscale의 텍사스 확장을 거절했다는 보도(인베스팅닷컴 11/5) - Nscale은 350억 달러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WSJ은 하이일드 채권시장이 네오클라우드에 '사실상 닫혔다'고 전했습니다(11/3).
- 오늘 밤(진행 중): 나스닥100 선물 28,426 부근 (11/4 정산 28,566.75 대비 -0.5%, 밤 9시경 수집 값이며 확정 아님).
출처: 인베스팅닷컴 https://www.investing.com/news/stock-market-news/microsoft-declines-nscale-texas-expansion-ahead-of-35-bln-ipo--report-5002260, 야후 파이낸스 종가 데이터

■ 채권·환율·원자재

- 미 국채(11/4 확정): 3개월물 4.21%, 2년물 4.58%, 10년물 4.90%(-0.05%p), 30년물 5.28%. 2년-10년 금리차 +0.32%p. [계산]
- 한국 국고채 3년 3.671% (-0.039%p). 일본 국채 30년 3.892% (-1.24%, 11/5).
- 원화: 1,343.4원 (전일 1,338.8원 대비 약세).
- 원유 급락: 트럼프가 '즉각적인 이란 공격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카타르 중재가 이어지며 브렌트는 수요일 -8% 하락해 10월 초 이후 처음 100달러 아래로 내렸고, 목요일에는 93.63달러(-1.05%), WTI 87.13달러(-1.12%)로 약 두 달 최저입니다(진행 중 값). 금요일 고점(118달러 부근) 대비 약 20% 하락. 밴스 부통령이 선거 패인으로 이란 전쟁을 지목했습니다. 다만 이란 측은 '합의와 거리가 멀다'고 밝혔고 미군은 주요 군사작전 준비를 마무리 중이라는 보도(악시오스)가 있어 변동성은 남아 있습니다.
- 미국 항공유·경유(EIA 현물): 새 값이 게시됐습니다 - 11/2 항공유 갤런당 4.019달러·경유 4.677달러, 11/3 항공유 4.198달러·경유 4.823달러(유가 급락 반영).
- 금 온스당 4,140.9달러 (진행 중 값).
출처: 걸프뉴스 https://gulfnews.com/business/energy/crude-slides-toward-93-wti-drops-to-87-as-trump-rules-out-immediate-iran-strikes-1.500736498, 미 재무부 일일 금리표, 네이버증권

■ AI 가격 신호 3종 (11/4 미국 마감 기준)

왜 보는가: 균열은 지수 전체보다 '빌려 쓰는 쪽'과 '반도체'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세 가지를 매일 같은 방식으로 잽니다.
1. 반도체 대 지수 괴리: 최근 20거래일 반도체지수(SOX) -21.41%, 나스닥 -6.54%. 괴리 -14.87%p로 전날(-11.73%p)보다 다시 크게 벌어졌습니다. [계산]
2. 빅4 대 취약 사업자: 6개월 최고가 대비 빅4 평균 -13.39% (MS +0.0%, 아마존 -6.3%, 메타 -19.0%, 구글 -28.2%), 취약 3사 평균 -42.81% (오라클 -50.1%, 코어위브 -62.4%, 블루아울 -15.9%). [계산]
3. 나스닥 고점 대비 -6.75% (전날 -8.07%). [계산]
- 참고: 코스피의 최근 고점 대비 낙폭은 -24.0%로 약세장(-20%) 영역입니다. [계산]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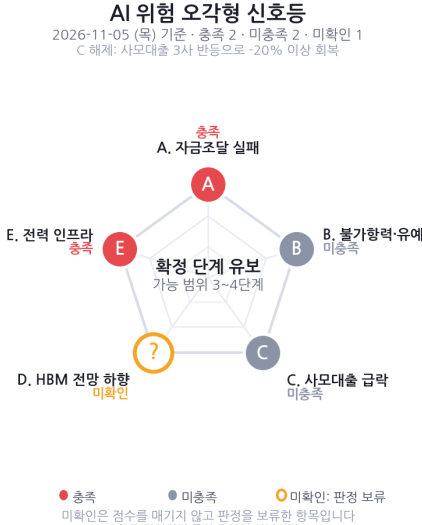
- 기조: '위험 회피'를 강화합니다. 미국 지수는 반등했는데 한국과 메모리·전력·장비만 급락한 것은, 이번 리스크가 경기가 아니라 'AI 밸류체인에 집중된 정책 리스크'이기 때문입니다. 텍사스 모라토리엄 공약 당선은 이미 채권 매각이 보류된 앤트로픽 프로젝트 지역과 겹칩니다. 다만 시장 가격은 메모리 수요 파괴가 아니라 '건설 지연'을 반영하는 단계입니다
- 메모리는 2029년까지 매진 상태이고 애플도 가격 강세를 확인했다는 분석(인베즈)이 있습니다.
- 판단이 바뀌는 조건: (1) 외국인 순매수 재개와 SOX-나스닥 괴리 -5%p 이내 축소, (2) 텍사스 모라토리엄의 실제 시행 범위와 오라클·메타 채권 발행 소화 확인, (3) 메모리 현물가가 실제로 꺾이는지 여부(발주 둔화 우려가 가격 하락으로 번지는지).
- 오늘의 새 판단 기록: "코스피 종가가 5,383.80 아래일 것" - T+1(11/6, 금)과 T+5(11/12, 목)에 각각 검증합니다.

[복기]

만기가 온 지난 판단을 실제 값과 대조합니다.
- 11/4 판단: "코스피 종가가 5,683.80 아래일 것" (T+1, 11/5 검증) → 실제 종가 5,383.80. 적중.
- 10/29 판단: "코스피 종가가 5,937.66 아래일 것" (T+5, 11/5 검증) → 실제 종가 5,383.80. 적중.
- 해석: 두 건 모두 하락 방향이 들어맞았습니다. 검증 완료 19건 중 적중은 9건이며, 같은 흐름 안의 연속 결과는 독립 검증이 아니라는 한계를 둡니다.

[AI 위험 v1]

AI 투자 열기의 균열을 미리 잡기 위해 정해 둔 다섯 가지 조건입니다.



- A. AI 기업의 자금조달 실패·철회 (최근 30일 2건 이상): 충족(유지) - 기존 사례(데이터센터 IPO 5건 철회·연기, 앤트로픽 연계 텍사스 채권 매각 보류)에 더해, 마이크로소프트가 Nscale의 텍사스 확장을 거절(11/5)했고 WSJ은 하이일드 채권시장이 네오클라우드에 사실상 닫혔다고 전했습니다(11/3). 텍사스 모라토리엄은 추가 철회 사례를 낳을 수 있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 B. AI 인프라 금융의 불가항력 선언·지급유예 (최근 30일): 미충족 - 창구 안의 신규 사례가 없습니다.
- C. 사모대출 3사(APO·KKR·BX) 중 2사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20% 이하: 미충족(해제) - 어제 충족했으나 3사가 +5.6~8.1% 반등하며 하루 만에 기준 위로(APO -14.5%, KKR -12.1%, BX -15.9%). 충족과 해제가 하루 만에 뒤집힐 만큼 변동성이 큽니다. [계산]
- D. 엔비디아 또는 삼성·SK의 HBM 전망 하향 공시: 미확인 - 회사 공시 기준의 하향은 없습니다. 시장은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 → 메모리 발주 둔화'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지만, 실제 수요 파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E. 전력 인프라 4종 중 2종 이상 최고가 대비 -30% 이하: 충족(유지) - HD현대일렉트릭 -71.7%, 효성중공업 -61.1%, LS일렉트릭 -59.2%, GE버노바 -29.1%(기준 근접). [계산]
- 종합: 충족 2개(A, E)로 매핑상 3단계지만 D 미확인으로 확정은 유보합니다. 가능 범위 3~4단계로 어제(4~5단계)보다 한 단계 내렸습니다(C 해제). D 확정 시 미충족이면 3단계, 충족이면 4단계입니다.

출처: 인베스팅닷컴(위와 동일), IFR https://www.ifre.com/bonds/2502504/coreweave-rout-freezes-data-centre-financing, 블룸버그 로 https://news.bloomberglaw.com/capital-markets/banks-shelve-bond-sale-for-anthropic-tied-texas-data-center

이 기록은 참고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